

국가유산 지정 번호 폐지됐는데… 현장 ‘엇박자’

지정 순 번호가 가치 순 오인돼 2021년부터 삭제
도, 지난해까지 6500만원 투입 안내판 명칭 변경
제주목 관아 입구 배포 자료 등 지정 번호 그대로

국가유산(옛 문화재) 지정 번호 폐지 시행 이후 안내판 변경 작업 등이 추진됐지만 일부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의 국가유산 홍보물에 아직도 지정 번호를 쓰는 등 현장에선 엇박자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문화재보호법(현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1년 11월부터 지정 번호를 폐지했다. 지정된 순서에 따라 부여했던 번호가 가치 순으로 오인돼 국

가유산 서열화 논란이 생기고 있다면서다.

이에 제주도에서도 제주도 지정 문화유산 등을 포함해 지정 번호를 삭제해 왔다. 도청 홈페이지 자연·문화유산 정보 등 온라인은 물론이고 제주 곳곳에 있는 국가유산 안내판에 담긴 지정 번호를 가리거나 시설물을 바꿨다.

22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정 번호 가림·교체 등 안내판 명칭 변경 사업이 실시된 건수는 자연·문화유산을 합

쳐 580건이 넘는다.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65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지정 번호가 있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제주목 관아 홍보물, ‘2025 제주마 입목 문화 축제’ 등이 그 예다.

지난 19~20일 개최된 ‘2025 제주마 입목 문화 축제’는 과거 제주마의 천연기념물 지정 번호를 부제(‘347 페스티벌’)로 활용했다. 호기심이 생기는 숫자로 축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인데, 문제는 홍보 자료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천연기념물 지정 번호를 강조하면서 혼선을 빚는다는 점이다.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제주목 관

아 입구에 비치된 한국어·영어·일어·중국어 홍보 리플릿 표지에는 과거 제주목 관아의 국가유산 지정 번호인 ‘사적 제380호’라는 글자가 그대로 박혀 있다. 리플릿 속지의 관덕정 설명 자료에도 ‘보물 제322호’라고 했다. 제주목 관아는 제주도에서 이달 1일부터 막을 올린 ‘2025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즌 1’ 프로그램 방문지로 선정된 25개 유산 중 한 곳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다.

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해 “미처 살피지 못한 것 같다”며 “현재 남아 있는 리플릿이 소진돼 새롭게 자료를 제작할 때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16만t급 월드와이드 크루즈 강정항 첫 입항 도, 22일 앤섬 오브 더 씨즈호 입항 환영 행사

초대형 월드와이드 크루즈인 ‘앤섬 오브 더 씨즈(Anthem of The seas)호’가 22일 서귀포시 강정항으로 첫 입항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앤섬 오브 더 씨즈호는 일반 승객 4825명과 승무원 15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로알캐리비언 선사의 16만t급 대형 크루즈다. 앤섬 오브 더 씨즈호는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대만(지룽)과 서귀포시 강정항을 거쳐 일본(요코하마)으로 간다. 이날 오전

7시30분 강정항에 입항한 앤섬 오브 더 씨즈호는 6시간30분가량 제주에 체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강정항에서 앤섬 오브 더 씨즈호 측에 기념품을 증정하는 환영 행사를 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신규 월드와이드 크루즈 입항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제주가 크루즈산업의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봄비 내리는 녹차밭 봄비가 내린 22일 서귀포시 안덕면 오설록 녹차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탐방에 나서고 있다. 강희만기자

마을교육활동가와 만든 ‘걸어서 제주 속으로’

도교육청, 교구 2종 개발
팝업북·보드게임 등 다양

제주도교육청과 마을교육활동가들이 함께 제주 역사·문화 콘텐츠를 담은 교구를 개발했다. 팝업북, 해설 카드, 보드게임 등 형태도 다양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발

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마을교육활동가들과 제주형 자율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콘텐츠 교구 ‘걸어서 제주 속으로’ 2종을 개발해 도내 학교 87곳(초 57곳, 중 21곳, 고 6곳, 특수 2곳, 온라인학교 1곳)에 보급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부터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마을교육 강화

를 위해 마을교육활동가들을 포함해 제작팀을 구성하고 제주 역사·문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주시 원도심과 제주 서부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험용 교구를 개발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제주형 자율학교의 마을교육활동가들과 협업해 ‘제주 돌하르방 48기를 찾아서’ 체험형 교구를 개발하고,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의 자문을 받아 ‘거문오름 그림책’도 제작할 계획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4·3왜곡 폄훼 처벌 근거 담은 4·3특별법 개정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3왜곡과 폄훼 처벌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을 향해 4·3특별법 개정 등 4·3분야 4대 정책을 선정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제안한 정책은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4·3왜곡 및 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4·3아카이브 기록관 설립,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4·3당시 미군정 책임 규명을 위한 한·미 조사위원회 설치 등이다.

위원회는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그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포함한 4·3기록관 건립은 필수적인 후속 조치”라면서 “트라우마치유센터 역시 국립 시설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관광 이번엔 렌터카 바가지요금?

연휴 기간 요금 크게 올라… 관광객 유치 찬물

해수욕장과 음식 가격에 이어 이번에는 5월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제주지역 렌터카 이용 요금이 평소보다 7배나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월에 이어 5월 연휴인 3·6일 제주도 여행을 즐기려는 관광객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4·3아카이브 기록관 설립,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4·3당시 미군정 책임 규명을 위한 한·미 조사위원회 설치 등이다.

위원회는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그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포함한 4·3기록관 건립은 필수적인 후속 조치”라면서 “트라우마치유센터 역시 국립 시설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어 “5월 3일~6일에 제주도에서 평범한 차량(모닝, 레이, 소나타, 캐스퍼 등)을 예약하려면 최소 70만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라며 “진짜 이 돈이면 정말

해외로 가지, 왜 제주도를 가냐”고 질타했다.

실제 민원인이 제시한 렌터카 견적가의 경우 평소 2만500원이던 아이오닉5 차량은 5월 연휴 기간 89만2600원까지 뛰어올랐고 K5는 74만6875원, 그랜저는 74만3400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와 있다.

민원인은 “이 글을 읽는 공무원은 해당 날짜에 렌터카를 검색해보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바라봐달라”면서 “정상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면 꼭 알려달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해부터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되자 업종별 권장가격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관광 물가에 대한 일원화된 소통 창구를 개설하겠다는 대책을 내놴으나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 창간 36주년을 축하합니다

“상상하는 기술. 꿈꿔왔던 내일”



**더 나은 제주를 위한 모든 도전과 꿈이, 가능성이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올 수 있도록
동남종합건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東南綜合建設

“상상하는 기술. 꿈꿔왔던 내일”